



4면

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들어설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음 1월 20일) 제272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재까지 5593명

(2일 오후 5시)

요양시설 종사자 등 대상
지난 1일까지 1769명
어제 하루만 3824명 완료

도, 접종 대상자별로
시설 내 방문접종 등 진행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전북도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이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전북도내 10개
시·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입
소자 5,593명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
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까지 65세 미만 요양병
원·시설 입소자, 종사자 1,769명이 접
종을 완료했다.

지난 1일에는 오후 6시 기준, 전주 3
개소 227명, 군산 4개소 219명, 김제 2
개소 95명, 완주 1개소 33명 등 총 574
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2일 당일에는
3,824명(오후 5시 기준)이 접종을
완료했다.

전북도는 접종 대상자별로 보건소
내소 접종 또는 병원 내 자체 접종,
시설 내 방문 접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지역
은 요양병원이 없거나, 요양시설과 보
건소 간 접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요
양시설 대상자 접종을 모두 완료한다
는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1,089명도 오는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뒤, 화이자 백신은 21일 뒤에 실
시한다. /유호상 기자



봄 다가가 꽃망울 맺힌 목련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일 전북대학교 교정에 심어진 목련이 다가온 봄을 알리듯 꽃망울이 맺혀 있다.

1학기 일반고 자신감 향상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의 적성 고려
교육과정의 다양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이 2021학년도 1학기 일반고 자
신감 프로젝트 오순도순 공동교
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계획을 밝혔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
년도 1학기에 오프라인으로 운
영하는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9개 시군, 23개교, 52과
목),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온
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8
개 시군, 10개교, 19과목)를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

공동교육과정 참가학생 모집관
련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학교 내 게시판,
학생 개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수강학생을 모집할 예
정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거점학
교에서 지정한 일자, 시간에 학
교 또는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
해 교실온달(https://edu.classon.
kr)에 접속해 수강하는 강좌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목은 당
해 학교에서 3개년 정규교육과
정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며,
공동교육과정 참여 가능 학생은
소속학교 3개년 교육과정에 미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다. 특히 동일과목에 대해
여러개 학교에 복수지원은 불가
하며, 복수지원 시 지원학교 모
두 탈락처리한다.

이는 학생의 진로·적성·흥미
에 따른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교육
과정 다양화 정책의 일부다. 특
히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선발과
정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면접과정을 통해 인성, 흥미,
참여동기 등 성적과는 무관한
학생의 진로와 흥미만을 살펴본
후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업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중
심 활동형·모둠형·토론형·발
표형으로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농어촌 일자리 창출 '협력'

도, 전북연구원과 협약 체결
지역조사 연구 조사원 모집

전북도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도센터)와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
석센터(이하 경제동향분석센터)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도 센터는 다양한 지역조사 연구사
업을 담당하는 전북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 센터는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
석센터가 추진하는 지역조사사업의
조사원을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발
운영 중인 일자리통신원과 기초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모집한다.

모집한 조사원의 '농어촌 일자리·
일거리 은행' 등록을 지원하고, 지역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연구
사업의 현장성과 효과성을 높여 향
후, 조사원이 지역 활동가, 지역 사업 실

무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갖출 수 있
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도내에서 추진하는 일자
리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농어
촌 일자리·일거리 은행' 지역민 재능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 지역조사
일거리 연계(매칭)를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100여명의 조
사원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조호일 도 농촌활력과정은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능·경력을 바
탕으로 일거리를 찾는 지역민과 지역
인재를 찾는 기관을 중개함으로써 농
촌 활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지역조사 연구사업에 참여
를 원하는 도민은 '농어촌 일자리·
일거리 은행'에 가입하고 자신의 재능·
경력을 등록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작년 도내 소비자 상담 의류·섬유가 '다수'

전북도 분석 결과 2만192건 중 938건... 상담사유로 전 품목 모두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아

전북도가 2일 지난해 도민의 '소비
자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공동
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0년도 소비자상담 총 2만192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 국외여행,
이동전화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상담분야는 의류·섬유(938건), 국외
여행(534건), 이동전화서비스(531건),
투자자문컨설팅(526건), 정수기대여
(렌트)(403건) 순이다.

상담사유로는 전 품목 모두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아 계약체결 시 소비자
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소비자 상담품목 중 중
가율이 높은 품목은 보건·위생용품
(1,129.2%), 예식서비스(521.6%), 상품
권(123.1%),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119.0%), 항공여객운송서비스(84.8%)
등이었다.

이 품목들은 코로나19와 매우 밀접
한 품목들로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계약불이행', 예식서비스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는 '계약해제·위약금'과
관련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외출

에 따라 상품권의 사용기간 내 사용
을 하지 못해 사용 만료로 인한 불만과
휴대폰을 이용한 여가시간 증가에 따
른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의 계약해
제·위약금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8.9%(7,860건)으
로 가장 많았고, 익산 12.4%(2,506건),
군산 11.1%(2,237건), 정읍 3.5%(708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1.5%(1만402건)로
남성 48.5%(9,790건)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4%로 가장 많
았고, 50대 24.1%, 30대 23.2%, 60대
12.7%, 20대 8.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의 상담비율은 전체
40%(8,069건)로 전국(32.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 9,568건
(47.4%), '전자상거래' 5,475건(27.1%),
'기타' 1,547건(7.7%), '방문판매'
1,047건(5.2%), '전화권유판매' 925건
(4.6%), '기타통신판매' 815건(4.0%),
'TV홈쇼핑' 752건(3.7%) 등의 순이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
매방식이 12%(85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법 위반 사업자의 규제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소비자교육, 이동상담실, 소비자감
시단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
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다문화가족, 대학생 등을 대
상으로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예방법을 포함한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축제·행사 등과 연계해
현장 이동상담실을 꾸려 피해구제 활
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감시단 15여명을
투입해 방문·전화·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1만5천여개 업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
정처분 등을 강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
방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
로나19의 영향으로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쇼핑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문
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
자들이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다이를
즐거워
익산시

Green Eco City, 익산

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온을 완화합니다.
생활 주변에서 나무 한 그루, 꽃 한송이
심고 가꾸는데 함께해 주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익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헌수, 기부 문의 :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854-4300
사업문의 : 익산시 늘푸른공원과 ☎859-5886